

요즘 언론매체에서 자판기를 욕되게 하는 표현들

각종 언론매체를 보다 보면 '자판기'라는 용어를 특정 기사 내용에 비유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두는 대로 나오고, 덩그러니, 묵묵한 자판기가 좋은 기사 내용에 비유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없다. 그런데 최근에 자판기가 좋지 않은 기사에 비유되는 일이 많아 졌다. 아래의 내용을 보자.

▶ 변종 성매매... 24시간 자판기 커피 뽑듯
매직 미러 초이스, 룸살롱, 오피스텔 마사지, 남성 휴게텔...
집창촌 단속강화에 변종 성인 만남 전화 · 인터넷사이트 활개

▶ '자판기'로 전락한 관련 연구기관들
<기자의눈> 나라 존립마저 위협하는 최악의 거짓말 '통계조작'

▶ 아이리스, 시청자를 눈물자판기 취급했다

▶ 세종시,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냐
정몽준 "20일내 10년 앞당길 계획 초안 내놔라"
행정도시 건설청 업무보고서 즉흥발언

요즘 검색되는 '자판기' 용어 사용 기사의 타이틀들이다.

변종 성매매와 자판기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24시간 자판기 커피 뽑듯'이라는 비유를 쓰지 않나.

정직한 자판기를 관련 연구기관들 비리 현상에 비유했다.

아이리스 드라마의 부실한 극본 개연성이 문제이지, '눈물 자판기'라는 표현은 왜 써?

요즘 여론을 들끓게 만드는 세종시와 자판기가 무슨 관련이 있다고, '세종시, 누르면 나오는 자판기냐

는 표현도 썼다.
물론 기사를 맛깔스럽게 하는 비유의 묘미는 인정하지 않자는 게 아니다.

그런데 자꾸 자판기가 안 좋은 사회 문화적 현상에 비유가 되면 본의 아니게 '자판기'를 욕되게 하는 인식을 주게 된다면 점이다.

자판기라는 용어도 하나의 브랜드이다.
브랜드는 좋은 쪽으로 계속 인식되게 선순환구조를 형성해야지, 자꾸 나쁜 쪽으로 쓰이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자판기 본연의 잘못으로 브랜드 가치가 실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안좋은데 비유되는 것으로 '자판기'가 자꾸 사용되다 보면 일반인들에게 부지불식간에 자판기에 대한 거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자판기라는 브랜드를 관리하고 좋은 쪽으로 확장시켜 가야 한다는 점에서 언론매체에서 비유하는데 신중했으면 한다.

정직하고 성실한 자판기를 제발 좋은 쪽으로 비유해 줘라. 뇌물을 수수하면 '주는 대로 받는 자판기'라는 비유는 이제 식상하다.

2010년 '자판기'라는 광의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족'을 걸어 봤다. 2010년은 자판기의 브랜드 가치를 새롭게 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